

2010년 등록금, 작년과 같은 수준

우리대학 등록금, 9년 전에 비해 42.17% 증가

우리학교 2010학년도 등록금이 작년과 똑같은 수준 7백9십9만3천원(1년치 학교비용)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본지 조사 결과, 올해 등록금이 9년 전(2002년)보다 2백3십7만1천원(인상률 4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호(기획협력팀) 팀장은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려는 총장과 이사장의 뜻이 있었다"고 등록금 동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승호 팀장은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취업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그에 따른 금액이 높아진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을 통해 수입이 제한돼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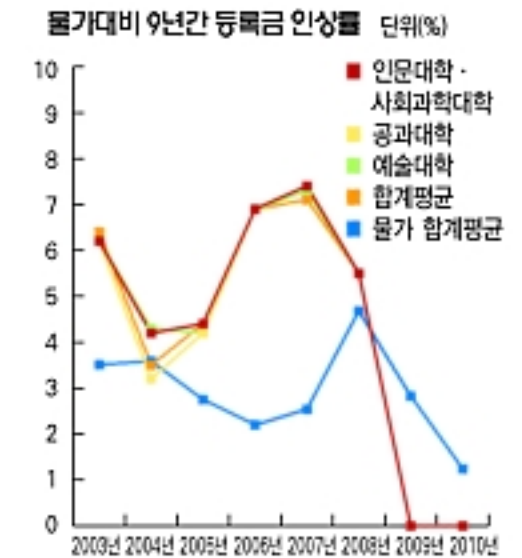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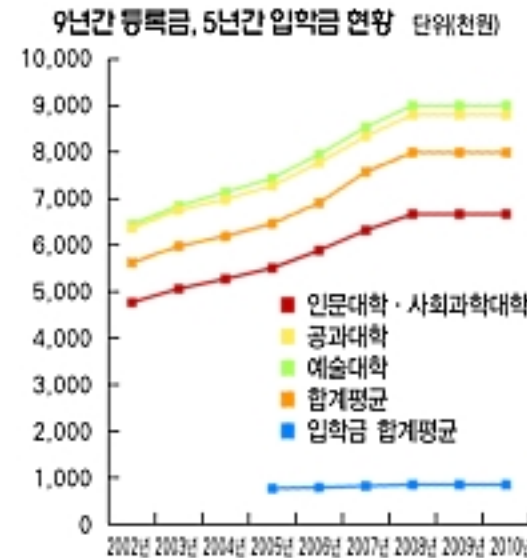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동결된 등록금도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물가상승률은 3.51%, 3.59%, 2.75%, 2.2%, 2.54%, 4.68%, 2.83%였다. 이 기간 우리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6.4%(2003년), 3.5%(2004년), 4.4%(2005년), 6.9%(2006년), 7.1%(2007년),

5.5%(2008년), 0%(2009년)로 나타나 물가를 계속해서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2004년, 2009년 제외)

또 액수로 보면 우리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학교평균 7백9십9만3천원(2010년)으로 9년 전의 학교평균 5백6십2만2천원(2003년)에 비해 2백3십7만1천원(42.17%)이 증가했다.

9년간의 각 대학별 등록금은 인문대 및 사회과학대가 4백7십6만5천원(2003년)에서 6백6십6만7천원(2010년)으로 39.92% 증가해 우리학교단과 대학 중 가장 높은 등록금 인상을 보였다. 공과대학은 6백3십6만2천원(2003년)에서 8백8십만1천원(2010년)으로 38.34% 증가했고, 예술대학은 6백4십4만6천원(2003년)이었던 등록금이 9백만 6천 원(2010년)으로 39.71% 인상됐다. 액수로 보면 예술대학이 2백5십6만원으로 가장 크게 올랐고 공과대학 2백4십3만9천원, 인문대 사회과학대가 1백9십만2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위의 등록금 인상에는 입학금 증가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우리학교 입학금의 경우 7십7만원(2005년), 7십9만



자료/시립대학 회계정보 시스템, 대학정보공시

원(2006년), 8십2만원(2007년), 8십5만원(2008년)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등록금을 동결한 2009년과 2010년은 2008년과 같은 8십5만원이었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 과정에서 '등록금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학생들에게 등록금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승호 팀장은 "등록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학생들과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동결조치를 하면서 학생들과 논의를 한다면 예산 편성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취재부

신입생 축하



한성대학교 총장 정주택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키워 주시고 도와주신 부모님과 사회의 은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10학년 새내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한성대 인으로서 대학 4년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4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과 도전정신을 무한대로 펼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학습하며, 학부모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는 우리 한성대학교 새가족으로 입학한 1천826명의 10학년 새내기들을 환영하며, 스승과 제자간의 학문적 인연을 기리기 위한 학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로서 이 시간 이후로 새내기 여러분은 우리 한성대학교라는 '문중'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200여분의 교수님들 또한 이들 새내기를 자신의 학문적 지식으로 받아들여 열심히 가르치고 육성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닌 '한성 한 가족', '한성이라는 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한성가족이 된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길고도 고된시간을 보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지루한 긴 터널을 지나 당당한 대학인으로 새로운 문에 들어섰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당당히 서 있는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내기 여러분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하여 자유와 절제를 조화롭게 조율할 줄 아는 그러면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진정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 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전공뿐 아니라 다양한 교양과목을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풍성하게 하기 바랍니다. 전공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교양과목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대학 학창시절에 일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드십시오. 많이 읽고 많이 느끼고 많이 토론하십시오. 선배와 후배와 동기들과 그리고 스승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면서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동반자들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새내기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일차로 건강한 대학생활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지성인이 되고 자신의 발전과 행복의 토대를 마련하며 나아가 이 사회와 인류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훈련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시간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귀한 자녀들을 저희 한성대학교에 보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을 대표하여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치고 보살피며 교육시키고 사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내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학년도 학부 새내기 1797명

정시 평균 경쟁률 8.05:1

우리학교 2010학년도 입학생은(2월 24일 오후6시 현재)1천797명으로 공식집계 되었다.

지난 12월 24일에 끝난 신입학 정시모집 결과를 보면, 1천168명 모집에 9천403명이 지원해 작년 평균경쟁률(9.46:1)보다 다소 낮은 평균 8.05: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0학년도 편입학 경쟁률은 255명 모집에 3,515명이 지원하여 평균 13.78:1로 나타났다.

신입학 정시모집 결과를 학과별로 보면 일반전형 정시 "가"군 전형에서는 화학과(중앙화전공 수재화)가 5명 선발에 70명이 지원해 1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역학과가 11.33:1, 한국어문학부가 11.23:1, 역사문화학부가 9.57:1로 그 뒤를 이었다. 정시 "다"군 전형에서는 무역학과

가 5명 선발에 93명이 지원해 18.6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어영문학부가 18.20:1로 나타났다. 이 전형에서 역사문화학부는 16.80:1로 정보통신공학과와 같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입학 정시모집 정외 모집 중 농어촌 학생전형에서는 47명 선발에 248명이 지원해 5.28:1로 나타났으며 전문계고교졸업자 전형에서는 45명 선발에 598명이 지원해 13.29:1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32명 선발에 35명이 지원해 1.09:1의 경쟁률을 보였다.

편입학 정시모집 결과를 학과별로 보면, 역사문화학부가 2명 모집에 60명이 지원해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학과가 28.75:1, 무역학과가 28.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혜진기자 odory11@hansung.ac.kr

한성학원 설립자 이희순 여사 제21대 이사장 선임



학교법인 한성학원은 1월 4일 제21대 이사장으로 학원 설립자인 이희순 여사를 선임 하였다.

이희순 여사(1914~)는 서울화양초등학교 교사(1953~1971) 재단법인 한성학원 이사(1971~1977)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1974~1976) 한국여류 탁구협회 부회장(1977~1979) 한성대학교 제2대 학장(1986~1988) 한국여전도회 성북구 지회장(1981~1991)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2006~2009)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

*약력
(1946~1948) 서울화양초등학교 교사
(1953~1971) 재단법인 한성학원 이사
(1971~1977)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1974~1976) 한국여류 탁구협회 부회장
(1977~1979) 한성대학교 제2대 학장
(1986~1988) 한국여전도회 성북구 지회장
(1981~1991)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
(2006~2009)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

2010년 1학기 한성대신문 발행일정

한성대신문 제 434호 3월 2일(화)발행	한성대신문 제 437호 4월 12일(월)발행
한성대신문 제 435호 3월 15일(월)발행	한성대신문 제 438호 5월 17일(월)발행
한성대신문 제 436호 3월 29일(월)발행	한성대신문 제 439호 6월 7일(월)발행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던 2010새터

새내기만의 재기발랄한 매력, 장기자랑과 응원전

지난달 21일(일)~23일(화) 2박 3일간 열렸던 2010학년도 새로배움터(이하 새터)는 체육관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모든 볼거리가 집중되었다.

단체별 장기자랑은 각 단대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예술대학의 합동공연이 우승을 차지했다. 예대의 합동공연은 바쁜 클럽문화를 표방한 의생활학부 새내기들의 춤으로 시작되었다. 한껏 달궈진 분위기에 이어 푸른 의상과 열광 분장까지 아바타 캐릭터를 리얼하게 패러디한 인테리어, 시각영상 디자인과의 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은 무용학과와 전 학생이 무대위로 올라와 광고의 한 장면처럼 화려한 댄스무대를 선보였다.

아바타 분장을 하고 장기자랑에 참가했던 안소정(시각영상 1)학생은 "대기실에서 분장을 하는데만 30분이 걸렸다. 열광은 푸른 불감을 칠했고 의상은 선배들이 천을 질러 붙여 만들어 준 것이다. 무대에 올라가게

되어 당황스러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예대 뿐 아니라 사대 장기자랑도 눈길을 끌었다. 경제학과와 부동산학과 새내기들은 처음 만나 서로 어색한 상황과 점심시간에 먹은 차가운 도시락 등 실제 새터상황을 패러디한 개그 공연으로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새터의 꽃, 단체별 응원전 역시 열기를 띠었다. 예대의 노란 봉이 체육관 앞자리를 가득 메웠고 공대는 강철 공대라는 슬로건과 과별로 준비한 갖가지 플래카드 시선을 끌었다. 또 남자가 많은 과특성을 살려 일명 '남편'을 연상시키는 굵고 힘찬 저음의 목소리로 응원하는 등 공대만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작년에 이어 응원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해 새터에는 가수 '슈퍼팀'과 '슈퍼키드'가 초대되어 양일간 각각 공연을 펼쳤다.

그러나 무대공연으로 이루어진 행사 가 주를 이룬 이번 새터가 모든 신

인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은 아니다. 자유시간이 거의 없이 빡빡하게 짜인 일정은 많은 새내기들을 지치게 했다.

행정학과와 한 신입생은 "체육관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조별로만 활동해 좀 더 많은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의생활학부의 한 신입생은 "중앙문선단 공연은 이별동안 똑같은 내용이어서 신선함이 부족했다"며 중복된 공연을 지적했다.

한편 정주택 총장도 새터를 방문해 새내기들을 만났다. 정 총장은 "입시 지옥을 통과해 새로운 대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한성대는 일류대학으로의 목표를 갖고 '학생성공교육'의 모토를 실천하며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새터에 참석한 신입생들을 환영했다. 홍보도우미 '하랑' 소개, 중앙문선단 개막공연, 방송제가 이어졌고 동아리의 홍보영상과 무대공연도 계속 이어

졌다. 특히 동아리들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공연으로 많은 새내기들의 관심을 모았다. 민족예술연구회는 특색있는 전통탈춤을 선보였고 들불, NOD, 왕산아, TRIAX도 동아리 특성에 맞는 무대공연을 올렸다. CCC, IVF, 극예술연구회 등은 준비해 온 동영상으로 동아리를 홍보했다. 이 중 NOD는 대중가요 뿐 아니라 힙합, 하우스 등 다양한 장르의 댄스를 선보여 신입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밤새도록 이어진 응급실 행렬

새터의 마지막 밤은 음주로 인한 사고로 얼룩졌다. 우려됐던 과음환자가 4명 발생한 것이다. 예대의 한 학생은 의식이 없고 가슴통증을 호소해 밤새 병원을 2번이나 찾은 등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사발식이 진행된 학과가 있어 문제는 더욱 컸다. 문제의 과에서는 22일 밤 소주, 맥주, 막걸리를 섞어 한번에 마시는 사발식을 했다.

학교측에서는 이런 새터 음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1일 오후 7시 고성체육관에서 <음주예방을 위한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체육관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과 함께 권주관(건강관리실) 팀원이 직접 2008년 새터에서 쓰러진 기계과 학생이 알콜 알레르기로 쓰러진 상황자료를 보여줬다. 그는 이를 통해 여러 종류의 술을 한 번에 마시지 말 것, 강요에 의해 억지로 술을 마



"캠보디아 학생들과 만나고 왔어요." 제 8기 해외봉사단(단장 문찬이)이 14박 15일간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해외봉사단은 현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예체능, 수학, 과학 등을 가르쳤다. 한 단원이 현지 소녀에게 다정히 글을 적어주고 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동정란

김청홍(한국어문학부) 교수 김 교수는 도서출판 박문사에서 '우화의 뒷풍경'이라는 저서를 지난 2월 27일 출간했다.

권해수(행정학과) 교수 권 교수는 2010년도 한국행정학회 연구담당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기항(의류패션산업전공) 교수 이 교수는 2010년도 한국패션문화협회 회장으로서 선임되었다.

전완식(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 전 교수는 서울미술관(서울 인사동 위치)에서 1월26일부터 31일까지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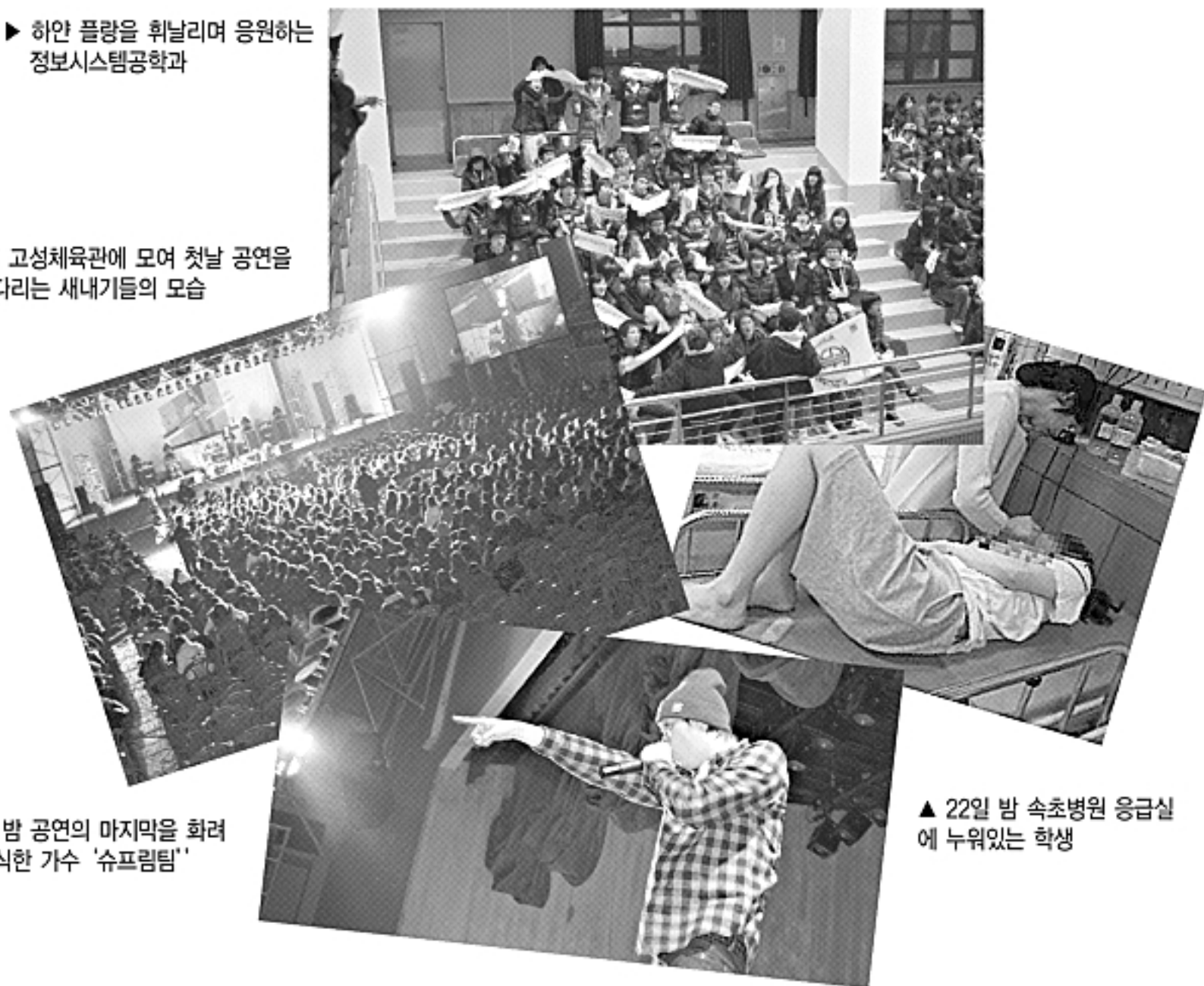
김형수(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김 교수는 2011년 출간예정인 Nova Science의 'Customer Relations' 전문서적의 Chapter Contributor 9명 중 한국대표 저자로 선정되었다.

윤재건(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윤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첨단융합기술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되었다.

신재홍(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1월 27일 2010학년도 인천지역 초등 학교 장학위원 세미나(장소: 인천광역시 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장학담당자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하얀 플라를 휘날리며 응원하는 정보시스템공학과

▼ 고성체육관에 모여 첫날 공연을 기다리는 새내기들의 모습



▶ 21일 밤 공연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가수 '슈퍼팀'

▲ 22일 밤 속초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학생

275개 과목의 '성적표' 공개

09년도 2학기 개설강의 중 275개 과목의 강의 만족도 평가결과가 지난 2월 10일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과목은 전체 강의 중 강의만족도 평가의 상위 20%에 해당한다.

이번 강의만족도 평가는 학생들의 약 91%라는 참여율을 보여 그 정확

성을 높였다. 또한 학교 측은 강의평가 제도 개선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여야 했다. 임종석(멀티미디어공학과) 강의평가 TF팀 위원장은 "강의평가제도 항목 개선은 강의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다양한 강의평가 문항을 개발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정확하게 측정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개선된 강의만족도 평가항목은 강의의 공통요소인 10개의 평가항목들과 강의의 특성에 따라 추가된 2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강의의 특성은 강의 중심, 토론식, 실습실습, 실기, 영리전용 등으로 나뉘었다.

박형신 기자 phillan@hansung.ac.kr

산시의 새 이름, 산업경영공학과

2010학년부터 산업시스템공학과와 학과명이 산업경영공학과(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약칭: IME)로 변경된다.

이는 국내 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공학뿐 아니라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력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ROTC 48기 임관식 열려

지난 2월 17일 미래관 DLC에서 학군장교(ROTC) 48기 임관식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2년 동안의 후보 기간을 거쳐 육군소위로 임명되며, 각 병과학교에서 초등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야전부대의 초급 간부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취재부

정통, 교내 특성화 사업에 선정

정보통신공학과가 'SoC 반도체 설계 및 공정교육'으로 교내특성화교육 사업에 선정되었다. 3학년 및 4학년 학생 16명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실시한 '학부생'을 위한 기본공정교육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했다.

김명하 기자 kmh77@hansung.ac.kr

순번	사진	이름	학과	주요경력
1		하성욱	경영학부	- 학사 : KAIST - 석사 : KAIST - 박사 : KAIST - 경성대 전임강사
2		지혜경	패션디자인전공	- 학사 : 서울대 - 석사 : 서울대 - 박사 : 서울대 - 한성대 조교수(비정년계약)
3		김희정	패션디자인전공	- 학사 : 성신여대 - 석사 : 성신여대 - 박사 : 성신여대 - 한성대 조교수(비정년계약)
4		최경희	의류패션산업전공	- 학사 : 이화여대 - 석사 : 서울대 / (영)London College of Fashion - 박사 : 서울대 - 대구대 조교수
5		도미요	교양교직학부 교양과정	- 학사 : (영)시코쿠가쿠인대학교 - 석사 : 고려대 - 박사수료 : 고려대 - 이화여대/빙동대 시간강사

한성대신문사 웹소식지 및 홈페이지 객원기자 모집

- 모집분야 : 한성대신문사 웹소식지 및 홈페이지 객원기자
- 모집인원 : 1명
- 모집자격 : 웹에디터(나모웹에디터, 드림위버 등 포함) 가능자, 이미지 툴(포토샵 등) 가능자 우대
- 근무형태 : 자택근무
- 보수형태 : 초기 웹소식지 제작비 지급 및 호별 제작비 지급(협의의 필요)
- 모집기간 : 지원접수 - 2010년 3월 2일 ~ 31일(수)
- 면 접 - 2010. 4. 1.(목)
- 발 표 - 2010. 4. 2.(금)
- 접 수 처 - press@hansung.ac.kr

※지원서 첨부
한성대 신문사(<http://news.hansung.ac.kr>)공지사항 참고

사설

꿈과 도전

요사이 밴쿠버에서 금메달의 낭보가 자주 전해져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하게 한다. 그들에겐 확실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도전과 노력을 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들의 여러 가지 성공담은 우리대학의 새내기들에게 대학생활의 시작 시점에 있어서 매우 좋은 교사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새내기들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대학입시라는 제도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생활하였을 것이다. 창조적 사고보다는 주어진 지식을 소화해야 하는 주입식 사고에 익숙할 것이다. 이제 대학의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들에게 사고의 틀을 깨라는 주문을 제일 먼저 하고 싶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라고, 내 삶의 비전을 세우라고 권하고 싶다. 흔히들 인간은 자신의 뇌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능력이 있다. 새내기들은 우리 대학의 새로운 환경에서

나의 능력을 다시금 바라보고 나의 인생에 대한 꿈을 확실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성공담 뒤에 꼭 따라붙는 이야기는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라는 것이다. 밴쿠버의 금메달 때문에 유행하는 인생역전이라는 말 뒤에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부단한 도전과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주어진 나의 육체와 능력이 쓰지 않아서 녹슬어 없어지기 보다는 부단히 나의 꿈에 도전하고 노력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하기를 두 번째로 주문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라고 권하고 싶다. 입시에만 매진하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에 매우 서툴 것이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 여유를 갖자. 가족과 친지 그리고 동료들을 돌아보고 진정한 배려와 사랑의 관계 형성에 힘쓰자. 인생이라는 것은 부단한 원성의 과정이라고 하지 않던가.

등록금에 관심 없는 총학생회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대학 캠퍼스에서는 등록금 문제로 인해 한동안 떠들썩 하게 된다.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장이나,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거나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투쟁을 하기도 한다.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등록금에 따라서 한 학기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등록금 문제가 우리학교 총학생회에서는 관심 밖의 일인 것 같다.

우리학교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등록금이 동결로 결정되었지만 올해에는 등록금조정위원회(이하 등조위)가 꾸려지지 않은채 등록금 동결이 결정되었다. 1월 말까지, 등록금고지서가 바로 코 앞에 다가오는 날에도 등조위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등록금이 동결된 고지서가 나온 뒤 본지가 등조위의 입장 여부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동결이 결정되어 등조위도 무산 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물론 맞는 말이다. 등조위는 등록금이 결정되지 전에 필요한것지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 마당에 등조위가 꾸려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등록금에 대해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때까지 등조위를 꾸릴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등록금이 인상되면 동결되던 인화되던 이미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 많은 학생들을 위한다 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중제, 새터 행사 기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다. 기획 자체만 보더라도 작년 대동제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사회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발언이나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초청가수를 부르거나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다. 노는것에서 오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이 적다고 해서 총학생회에도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등록금도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총학의 역할에 대해 신뢰가 사라져 간다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도 학생들은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총학생회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앞으로 있을 총학 선거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어려울 것 같다.



의화청

글로벌시

박두용 교수 (기계시스템공학과)



우리에게 콩글리시가 있듯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제각각 이름이 있다. 일본식 영어는 쟁글리시, 말레이시아식 영어는 맹글리시라고 한다. 말하는 속도가 빠른 영어는 싱글리시라고 한다. 말이 빠른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어도 빨리 말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글로벌시(Globish)는 전 세계 사람 누구나 쓸 수 있는 간편하고 쉬운 영어라는 뜻으로 'Global+English'를 합성한 말이다. 글로벌시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IBM 부사장을 지낸 프랑스인 '장 폴 네리에르'다. 국제업무가 많았던 네리에르씨는 극동 지역, 라틴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다. 프랑스 사람인 네리에르씨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의 영어는 발음도 이상하고, 억양도 독특하다. 문법이 틀리는 경우도 많다. 말하다보면 현재형과 과거형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시제가 틀리는 경우는 보통이다. 그러다보니 대화 내용이 뒤죽박죽되기 일쑤다.

네리에르씨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물론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음에도 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인보다 네리에르씨가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더 잘 됐다고 한다. 네리에르씨가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의 외국인들은 쉬운 영어를 사용했고, 쉬운 영어는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어 'nephew(조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았지만 'son of my brother'라고 하면 모두가 알아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쉽게 발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결과적으로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성과는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son of my brother'보다는 'nephew'라고 말했다. 물론 'nephew'가 정확한 영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현지인들이 미국인보다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상대방에게 내 말을 이해시키려면 뉴욕커피들의 도도한 네이티브 잉글리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언어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방법들이 늘어났고, 이것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진실이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에 따라 잡지 못한다고 한다. 즐기는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고민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 폴 네리에르를 감히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미국인들이여, 글로벌시를 배워라!"

인팍으로 말이 많은 시절이다. 말이 많은 시절치고 소통이 제대로 된 역사가 드물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디션가 장 폴 네리에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한성인들이여, 글로벌시를 배워라!"

한 줄 맺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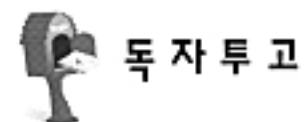
내가 기대하는 신입생들의 모습

이제 지나간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내기들이 들어올 때, 선배들로서 자신이 꿈꾸는 후배들의 모습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았다.

- 김성일 [2010/02/20 23:40] 완전 가인같이 귀여운... (정시 3)
권준형 [2010/02/22 13:52] 나를 오페라라고 불러주세요 (영문 3)
이영인 [2010/02/21 13:16] 완전 조권같이 웃기는... (영문 1)
조성제 [2010/02/23 00:12] 놀 때는 깔권, 공부 할 때는 이등병... (기계 4)
박정희 [2010/02/21 23:07] 귀엽고 풋풋한... (회화 2)
박정희 [2010/02/23 04:47] 할 땀 하고 놀 땀 흘리고... (지정2)
김지선 [2010/02/22 01:07] 수줍어 하고 예교많은... (영영 2)
김주완 [2010/02/23 10:08] 한겨울에도 풋풋이 짧은 차마를 입고 공학관 계단을 오르는... 아이러젠장 실명제... (멀티 4)
최준혁 [2010/02/22 11:19] 나를 좋아하고 얼굴이 예쁜 (멀티 3)
이정호 [2010/02/23 13:10] 귀엽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새내기... (경제4)
전동원 [2010/02/22 11:20] 말 잘듣고 나를 흠모하는 얼굴이 예쁜 (멀티 3)
전위안 [2010/02/23 17:32]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훌륭하며 나를 아저씨가 아니라 오페라라고 불러 줄... (무역 4)
이세민 [2010/02/22 11:21] 선배를 좋아하고 얼굴이 예쁜... (멀티 3)
최재봉 [2010/02/26 15:38] 다이나믹하고 열정이 넘치는 모습 (지정 3)
박진숙 [2010/02/22 13:17] 조인성, 강동원, 원빈보다 조금 더 잘생긴... (영영 3)

'한줄맺글' 관련 게시물은 '낙산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34호 당첨자는 최재봉(지정 3) 학생입니다.



모바일 학생증 도입해 주세요!

정유진 (컴공 3)

- 문제점
도서관 개찰구 앞에서 학생증 찾고자 지갑을 이리저리 찾는 모습, 식당 앞에서 잔돈을 찾는 풍경은 교내에서 자주 접하는 불편함입니다.
우리학교 식당의 경우 계산대도 하나밖에 없고 협소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처럼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에는 계산하려는 줄이 쪼그라들어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잔돈 찾다가 동전을 국에 빠뜨린 경험이 종종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가장 시급하게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결방안
이미 국내의 주요대학에서 모바일 학생증 도입하여 활성화 되고 있으며, 편리성과 활용도 역시 입증되었습니다. 우선, 모바일 학생증은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마그

신분별 도서 대출 변경 안내

학술정보관에서 이용자의 도서대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타 도서관 대출책수 및 본관 장서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신분의 도서대출 책수를 상향 변경합니다.

1. 변경사항

Table with 3 columns: 신분, 변경전, 변경후. Rows include 학부생, 교수, 조교/연구원, 시간강사/겸임교수, 졸업·휴학 학부생 (보통금 대출자).

* 도서이용의 회전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기간은 기존을 유지함.

2. 시행일

2010년 3월 2일(화)부터

학술정보관장

그룹스터디 예약제 시범 운영

그룹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들 다수에게 고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적으로 그룹스터디실을 예약제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구분, 내용, 비고. Rows include 시범 대상, 시범 기간, 예약 방법, 이용가능 시간, 이용가능 인원, 예약 취소, 기타 사항.

* 예약제 지속 여부는 시범운영 후 결정

학술정보관장

사람을 만나다 최인숙 뮤지컬안무가 무용학과 (90학번) 졸업생

“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뮤지컬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인숙 동문은 “무대가 아닌 곳에서 춤을 춘다는게 신기했다”라며 타 장르인 뮤지컬을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 한다.

각이 많았던 것 같다.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서 정말 춤을 원 없이 추었다. 새벽부터 이루어지는 레슨과 공연연습 등 여러 실기수업은 제대로 된 현대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교수님의 드라마틱한 안무수업은 훗날 안무를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회상했다.

스텝들과 같은 작품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의견이 어긋나면 성공적인 공연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반면 마음이 잘 맞을 때는 환상의 호흡을 내게된다.”고 설명했다.

기자수첩

주인공의 복잡한 사정

새터는 누구를 위한 축제일까? 물론 신입생! 새터는 말그대로 새내기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다녀오는 즐거운 새내기 새로배움터.

사람들과 노래 or 춤 or 개그연기라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말하고 싶지만 사실 새내기들은 독안에 든 쥐와 같다. 차츰차츰 조여오는 장기자랑의 압박을 달게 받아야만 한다.



대학원 인터뷰 제7대 광성학 대학원 총동문회장

“내실있는 대학원 총동문회를 기대해달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제7대 총동문회장으로 경영대학원 출신(1991) 광성학 전 수석부회장이 추대되었다.

등 가능성 제품을 만드는 그의 회사는 IMF때도 수출실적 2위를 기록했다. 올해로 제조업체 경력 32년차가 된다는 그는 여전히 사업가로 활동하며 제조업계에서 자신의 영역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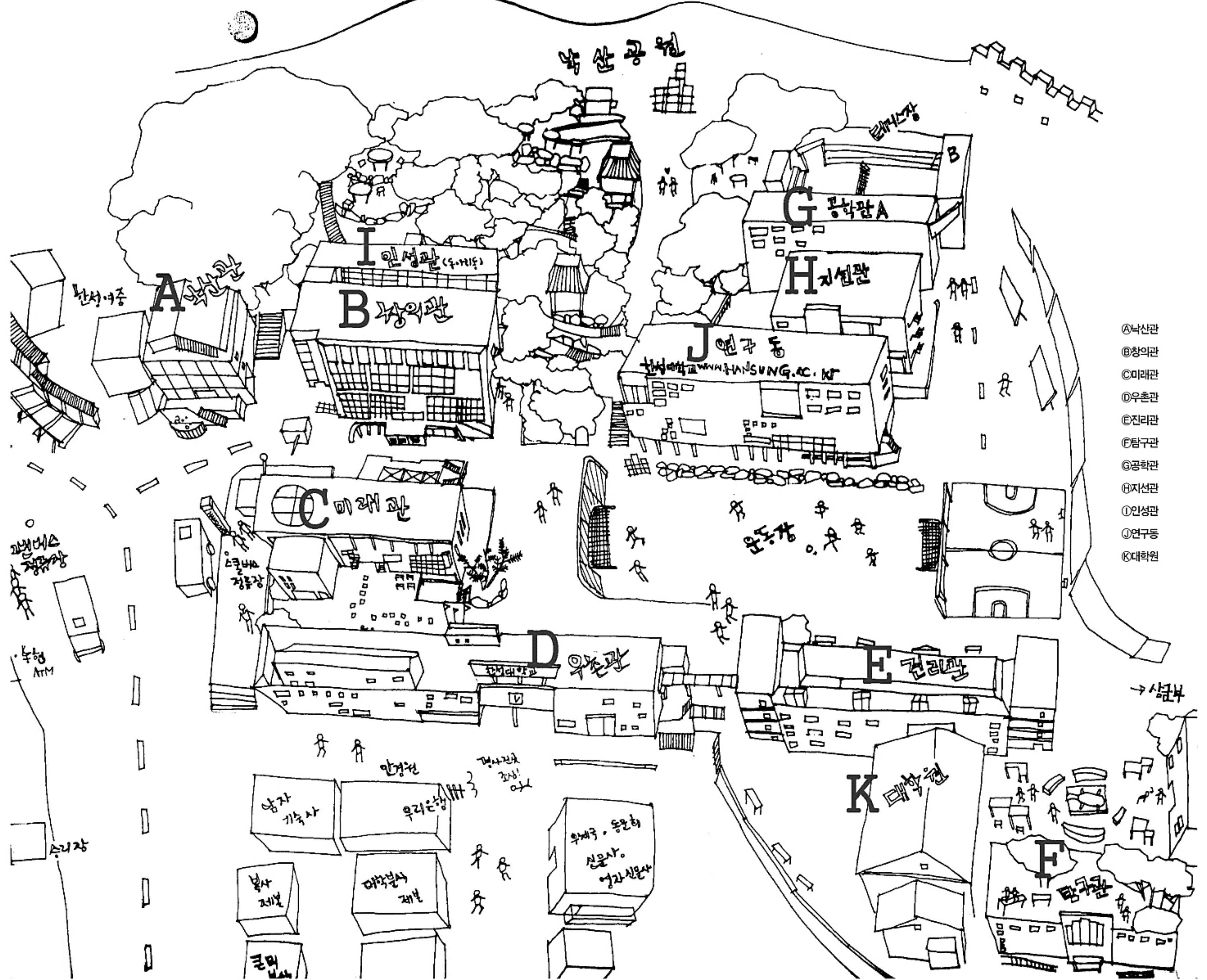
게 기술지원을 활발히 하겠다”며 하지만 내실이 튼튼한 총동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for 'printscreens' featuring a group photo of people at a meeting and a list of services.

주간식단표 (Weekly Meal Plan) for March 2nd to 5th.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일자 (요일)', '구분', and '식단' with various food items and prices.

가로세로 (Crossword) puzzle section. Includes a list of clues (가로, 세로) and a crossword grid with numbers.

월점 한성!



㉔ 체력단련실
낙산관 3층에 위치, 런닝머신마다 텔레비전이 탑재되어 있고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다.
단, 개인운동화와 운동복을 준비해야하며 학생증을 제시해야한다.

㉕ 학생식당
창의관 지하에 위치, 매일 새로운 메뉴로 반찬과 밥마다 가격이 붙어있어 고른 뒤 합산하여 계산한다. 분식인 라면, 떡볶이는 매점에서 식권을 따로 구입해 이용 가능함.

㉖ 건강관리실
교내에서 아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창의관 1층에 있다. 학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기온열기가 깔린 침대를 이용할 수 있다. MT를 갈 때 구급상자를 빌릴 수 있다.

㉗ 잡 카페
취업이나 진로에 고민이 있는 학생이라면 잡 카페로 가라. 취업에 관한 집단 혹은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진로·직업관련 심리 검사도 할 수 있다.

㉘ 학습정보관
미래관 건물. 본인 학생증이 있어야 이용가능, 층마다 각기 다른 도서들이 구비되어있다.
1층은 전자관과 연속간행물실, 2층은 책 반납과 대출의 안내데스크, 3층은 어문학계열, 4층은 사회과학계열, 5층은 인문자연과학계열, 6층은 예술계열의 도

서와 미디어자료실이 구비되어있다. 그룹열람실은 3층~5층에 총 4곳이 있다.

㉙ ㉚ ㉛ 사위실
사위실은 우촌관 1층, 인성관과 창의관 사이의 골목 파란 문에 각각 한 곳 씩 있다. 또한 공학관A의 2층 여자 화장실과 공학관A 2,3,4층 남자 화장실 안에도 사위실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낙산관 체력단련실에도 사위 공간이 있어 체력단련 후 이용 가능하다.

㉜ 영어라운지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 Group Speak, Open Activity, Write Spot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회화, 영자문 등을 공부할 수 있다. 또한 라운지 내 비치된 영문서적, 잡지, TV시리즈, 영화, 보드게임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래관 지하 카페테리아 옆에 위치한다.

㉝ 노트북 대여실
미래관 1층 통합 기자재실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 학생증 2장을 가지고 개인 당 17씩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을 빌릴 수 있다. 대여기간은 하루이며 분실, 고장 시 현물배상이 원칙이니 주의해야 한다.

㉞ 스타디라운지
미래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스타디라운지에서는 친구들과 모여서 학습활동하기, 회의 및 소모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층이 친구들이 모여서 학습할

동을 하는 곳이라면 2층에는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있다. 세미나실은 5인 이상일 경우에 입실이 가능하며, 최대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㉟ 카페테리아
미래관 지하 1층 영어라운지 옆에 위치해 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간단하게 커피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㊱ 컴퓨터실
미래관 지하와 탐구관 2층에 있다. 프린트 이용시 3,000원 기본으로 제공. 프린트 비용은 20원이다. 1,000원씩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㊲ ㊳ 매점
매점은 탐구관과 창의관, 공학관 세 곳에 있다. 탐구관과 창의관의 매점은 지하층에 있고 공학관의 매점은 1층에 있다.

㊴ 구내서점
우촌관 1층 중문 옆 위치, 우리학교 강의에 필요한 모든 지정교재를 판매하며 각종 종이, 물감, 붓 등 기본적인 미술 실기재료도 구비하고 있다.

㊵ 복사제본실
진리관 112호에 위치한 구내 복사실 인쇄가격은 장당 컬러프린트 500원, 흑백프린트 50원이다. 스캐너로 복사해 인쇄 할 수도 있다.

구분	학기중 개방시간	방학중 개방시간	주말 개방시간
노트북대여실	09:00 ~ 21:30	10:00 ~ 17:00	토:10:00~16:30 (방중X)
영어라운지	09:00 ~ 20:00	10:00 ~ 17:00	토:10:00~17:00 (방중X)
구내서점	08:30 ~ 21:00	10:00 ~ 18:00	토:10:00 ~ 18:00 (방중X)
건강관리실	09:00 ~ 21:00	09:00 ~ 17:00	토:09:00 ~ 17:00 (방중X)
체력단련실	07:00 ~ 22:00	08:00 ~ 21:00	X
자료 열람실	멀티미디어 일반도서자료 연속간행물실	09:00 ~ 21:00	10:00 ~ 17:00 토:09:00 ~ 17:00 (방중X)
일반 열람실	1, 2, 3열람실	06:30~23:00	
우촌관열람실	24시간		
학생식당	10:30 ~ 20:00	11:00 ~ 15:00	X
카페테리아	10:00 ~ 20:30	10:00~16:30	토: 10:00 ~ 16:30
사위실	낙산관 인성관과 창의관 사이 공학관 우촌관	체력단련실 시간과 동일함 24시간	
구내복사실(112호)	09:00 ~ 20:00	10:00 ~ 17:00	X
스타디라운지	09:00 ~ 21:30	10:00 ~ 17:30	토: 9:00 ~ 17:00
집카페	09:00 ~ 21:00	10:00 ~ 17:30	X
학습정보관 내 복사실	09:00 ~ 21:00	10:00 ~ 17:00	토: 10:00 ~ 17:00 (방중X)
매점	공학관 탐구관 창의관	09:00 ~ 21:00 09:00 ~ 21:30 09:00 ~ 21:00	X 10:00 ~ 15:00 10:00 ~ 17:00
컴퓨터실	미래관 탐구관	09:00 ~ 22:30 09:00 ~ 22:00	09:30 ~ 17:30 X

2010학년도 학부 신입생 명단

Table listing 2010 admission students by department (e.g., English Literature, Business Administration, Law, Education) and individual names.

* 2010년도 2월 24일 18:00기준.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0학년도 대학원 전기 신입생 명단

Table listing 2010 admission students for graduate programs (e.g., English Literature, Law, Education) and individual names.

* 2010년도 2월 23일 기준.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